

‘봄이 온다’ 평양 공연 마치고 돌아온 정인

떨렸던 오프닝 무대 웃음 가득했던 北 가수들 아직도 꿈꾸는 것 같아요

‘오르막길’ 시작의 의미로 선곡된 北 가수들과 ‘언니’ ‘동생’ 하며 수다 남편 조정치에겐 평양살 사다줬죠

북한에서 ‘평화의 봄’을 알리고 돌아온 가수 정인은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라고 했다. 13년 만에 평양에서 열린 남북 예술단 공연이 한반도를 촉촉이 적신지 열흘이 다 되어가지 만 아직도 그날을 떠올리면 “꿈꾸고 있는 것” 같단다.

10일 서울 한남동에서 만난 정인은 평양공연 준비과정부터 두 차례 공연과 마지막 날 열린 만찬까지, 평양공연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줬다. 3월 중순 정부로부터 북측 공연을 제의받고 공연을 하기까지 제대로 연습하기도 부족한 날이 었지만 “떨리는 마음을 감추고 최대한 평소와 같은 마음으로 노래에 집중하려고 노력”했다.

정인은 1일 동평양대극장과 3일 류경정주영체육관에서 열린 ‘남북평화 협력기원 남북예술단 평양공연-봄이 온다’에서 공연의 시작을 알렸다. 피아니스트 김광민의 연주곡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를 히프리로 부른 후 자신의 노래 ‘오르막길’을 열창했다. 이후 동료 가수 알리와 ‘얼굴’을 듀엣으로 들려줬다. 2012년 ‘월간 윤종신’으로 발표된 ‘오르막길’은 1월 문재인 대통령의 새해 기자회견 시작 전 회견장 내에서 흘러나온 노래기도 하다.

“한 걸음 이제 한걸음일 뿐/아득한 저 끝은 보지 마/평은 했던 길처럼 계속 나를 바라봐줘/그러면 건디겠어/사랑해 이길 함께 가는 그대여...”라는 가사가 인상적이다. 우리가 갈 길이 힘들겠지만 흔들리지 않고 한걸음씩 나아가자는 내용이 남북한의 상황을 잘 대변해준다는 의미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인은 “곡이 가진 의미가 ‘시작’이라는 느낌이 있어 선곡된 것이 아니겠느냐”며 “희망찬 느낌이 잘 맞아 떨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남북 예술단 수석대표인 가수 윤상은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 “최고의 오프닝이었다. 정인이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싶을 정도였다. 히프리로 포문을 열고 ‘오르막길’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확실하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정인은 자신이 공연 오프닝을 맡게 된 것을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동에 있는 조용필 기획사 YPC프로덕션에서 진행한 합동연습에서 처음 알았다. 공연 순서를 보자마자 “오!” 하고 짧은 감탄사가 나왔단다. 오프닝에 대한 부담이었다.

“아무래도 공연의 시작이라 부담스러웠다. 우리(가수)끼리는 농담으로 ‘빨리 하는 게 낫다’고 했지만 떨리는 건 어쩔 수 없었다.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했다.”

과거 북한 관객의 호응이 별로 없었다는 사실을 매체나 주위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터라 “호응이나 반응을 생각하지 말

고 노래에만 집중하자”고 다짐했다.

“사실 제가 그동안 해왔던 공연도 반응이 크게 없었던 적도 많았다. (웃음) 관객의 호응은 두 번째 공연에서 남북한 가수들이 총출동하는 무대에서 크게 느꼈다.”

정인을 포함해 조용필, 이선희, 최진희, 백지영 등 총 11팀(명)의 가수들은 3월 31일 전세기를 타고 평양에 도착했다.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륙한지 40분 만이었다.

“도착했을 때도 별다른 거 느껴지지 않았다. 각 가수마다 2명씩 안내원이 전담해 주의사항을 전해주고 편의를 보줬다. 4일간 함께 다니며 친분도 조금 쌓았다. 하하!”

1일 첫 공연을 마치고, 2일에는 3일 열리는 공연을 위해 남북 가수들과 함께 리허설을 진행했다. 리허설 후 옥류관에서 먹은 평양냉면은 누구나 경험할 수 없는, 잊지 못할 추억 중 하나다.

“맛있었다. 스타일이 다르다고 해야 할까. 동남아에서 음식을 먹으면 다른 느낌이 들지 않나. 하지만 평양냉면은 다른 문화권에서 음식을 먹는 느낌은 아니었다.”

3일 밤 열린 환송 만찬도 마찬가지다.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주재로 열린 환송 만찬은 시종 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지정석이라 딱딱한 분위기가 좀 생각났다. 노래도 같이 하고 술도 마시며 이야기를 많이 했다. 북측 가수들하고도 서로 ‘언니’ ‘동생’하며 술잔을 기울였다. 나중에 붙일 있으면 꼭 언니나 동생으로 부르자고 했다. 북측 삼지연관악단 현송월 단장이 여러 사람에게 술을 권하느라 꽤 술을 마셨는데, 결국 마지막엔 술을 남겼다. 저는 술을 마시느라 귀담아 듣지는 않았지만 ‘개성 있는 목소리’라고 칭찬해주는 건 들었다. 하하하!”

1일 공연은 3일 공연보다 관객 수도 적었지만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참석했다는 점에서 화제를 모았다. 당시 정인은 김 위원장이 관람한 사실을 뒤늦게 전해 들었다.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관객의 박수소리가 오래 들렸는데 그때 온 것 같다. 대중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도 뉴스에서 보던 분 아닌가. 비슷한 느낌이었다.”

이제 자연스럽게 관심은 ‘가을이 왔다’에 쏠린다. 김 위원장이 ‘봄이 온다’ 공연을 관람한 후 남북에 가을 공연을 제안하면서 거론한 공연 제목이다.

“물론 제의가 온다면 기꺼이 또 참석하고 싶다. 하지만 새로운 가수들이 출연하지 않을까.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공연이 아니지 않나.”

정인은 이제 본업 겸 부업인 육아와 새 앨범 작업을 하고 있다. 정인이 평양 공연을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육아를 맡은 남편 조정치에게 “미안해”서 평양에서 맛있는 술 한 병을 사왔지만 아직까지 회포를 풀지 못했다. 그는 “40대가 넘는 술인데 정말 맛있더라. 남편에게 고생했다고 한잔 따라줘야겠다”고 말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 평양 공연에 참여한 가수 정인은 마지막 무대를 마치고 북측 가수들과 가진 환송 만찬 후입담을 꺼내며 “서로 언니, 동생하면서 술잔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남북한 가수들은 훗날 만나면 편안한 호칭을 쓰자고 약속했다. 사진제공 | 미스틱엔터테인먼트

연예뉴스 HOT 5

가수 임현정, 11년 만에 신곡 발표

방탄소년단, 빌보드200 43위 랭크

안성기 아들 안다빈, 5월 웨딩마치

배용준·박수진 부부, 둘째 딸 순산

영화 ‘레슬러’ 부적절한 카피 사과

가수 임현정이 11년 만에 신곡을 발표한다. 감성 공동체 물고기자리에 따르면 임현정이 16일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새 싱글 ‘사랑이 온다’를 발매한다. 신곡 ‘사랑이 온다’는 35인조 오케스트라 편성의 경쾌하고 어쿠스틱한 사운드에 ‘사랑이 온다’고 반복되는 따뜻한 가사가 어우러진 임현정표 힐링 송이다. 임현정은 ‘사랑이 온다’ 속 모든 파트 연주를 위해 일본과 영국의 오케스트라 연주자, 스트링 편곡자를 직접 섭외해 세심한 녹음과정을 거쳤고, 믹싱과 마스터링을 수차례 반복해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2006년 5집 ‘올댓 러브’ 발표 후 해외 유학 준비와 건강 문제로 가요계 활동을 중단했던 임현정은 2월 윤도현의 새 싱글 ‘널 부르는 노래’를 함께 프로듀싱하며 대중의 곁으로 돌아왔다.

그들 방탄소년단이 미국 빌보드에서 연일 새 기록을 쓰고 있다. 빌보드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이 4일 일본에서 발매한 3집 ‘페이스 유어셀프’가 15일차 빌보드 앨범차트인 ‘빌보드200’에서 43위에 올랐다. 한국 가수가 일본어로 노래한 앨범이 미국 메인 음악 차트에 진입한 것은 이례적이다. ‘페이스 유어셀프’에는 TV 드라마 ‘시그널’, 장기 미해결 사건 수사반 ‘돈트 리브 미’, 발라드 ‘렛 고’ 등 12곡이 실렸다. 빌보드는 “방탄소년단은 어떤 언어로 노래하는지는 상관없다. 항상 빌보드 차트를 정복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라고 평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해 9월 발매한 앨범 ‘러브 유어셀프 승-허’가 빌보드200에서 최고 7위까지 올랐다. 이 차트 케이팝 최고 기록이다.

배우 안성기가 며느리를 맞게 됐다. 안성기의 아들인 미술가 안다빈(30)이 백년가약을 맺기 때문이다. 10일 영화계에 따르면 안다빈은 5월 중순 서울 시내 한 성당에서 가족과 친지들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린다. 예비신부 신상에 관한 정보는 알려지지 않았다. 며느리를 처음 맞게 된 안성기는 최근 친지 및 주변 사람들에게 이들의 결혼 소식을 알리기 시작했다. 안성기의 두 아들 중 장남인 안다빈은 화가 겸 설치미술가다. 1988년부터 미국에서 유학한 안다빈은 하이퍼 리얼리즘을 접목한 작품 활동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다. 2006년 서양화가로 미국에서 등단했으며 이후 2009년 미국에서 설치미술가로 첫 전시를 여는 등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작품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배용준(46), 박수진(33) 부부가 둘째를 얻었다. 소속사 키이스트 측은 10일 “박수진이 오늘 새벽 딸을 출산했다.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하다”고 밝혔다. 이어 “출산 후 병원에서 휴식 중이고, 배용준 씨도 결을 지기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배용준과 박수진은 소속 연예인과 대표로 만나 2015년 7월 결혼했다. 이후 2016년 10월 첫 아들을 낳았으며, 이날 둘째 딸을 품에 안게 됐다. 배용준은 2002년 KBS 2TV 드라마 ‘겨울연가’를 통해 한류스타가 됐다. 박수진은 걸그룹 슈가로 활동하다 배우로 변신, 다양한 작품에 출연해왔다. 배용준은 최근 키이스트 지분을 SM엔터테인먼트에 매각했고, 동시에 SM의 주식을 사들여 3대 주주가 됐다. 배용준은 향후 콘텐츠 기획자로 활약할 것으로 전망된다.

5월9일 개봉하는 영화 ‘레슬러’가 부적절한 광고 문구로 논란에 휩싸이고 하루만인 10일 사과했다. ‘레슬러’ 투자배급사 롯데엔터테인먼트는 9일 자사 SNS에 영화 주연인 이성경이 체육관 바닥에 엎드린 채 포즈를 취한 스틸 사진을 공개했다는 지적이 일었고, 최근 사회 전반에 불거진 ‘미투’ 흐름에도 어긋난다는 비난 여론이 쏟아졌다. 이에 롯데엔터테인먼트는 10일 사과문을 통해 “절대 물건을 연상시키는 악의적인 용도로 작성한 문구가 아니다”며 “주인공인 이성경 씨가 전직 레슬러였다는 점을 강조하려고 레슬링 의상을 재미있게 표현하고자 작성했다”고 해명했다.